

경제

복구 무등로·동구 필문대로 가장 싸

(무등경기장~광주역)

(산수동~동명동)

■ 광주 지역별 주유소 휘발유값 비교해보니

무등로, 광주 평균보다 64원까지 낮아

서구 농성동, 남구 주월·월산동 저렴

광주에서 기름값이 가장 싼 거리는 북구 무등경기장에서 광주역 사이의 무등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일보가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통해 광주지역 자치구별 휘발유값이 저렴한 거리를 조사한 결과, 동구는 필문대로(산수오거리~지산사거리), 서구는 농성동 일대, 남구는 대남대로(농성역~백운교차로), 북구는 무등로(무등경기장~광주역), 광산구는 송도로·사암로(송정사당병원~우산사거리) 거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광주 무등로 일대는 l 당 평균 휘발유값이 1918원으로, 광주지역 평균 1963원보다 45원이 싸다. 무등로를 사이에 두고 '경기장주유소'부터 '광주주유소'에 이르는 1.8km 구간에 주유소만 8곳이 영업중이다. 이 가운데 주유소 6곳이 휘발유 값을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l 당 1963.81원)보다 산 l 당 1899원에서 1905원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 값이 l 당 1899원으로

로 광주지역 최저가 주유소인 '경기장주유소'와 '창진주유소' 2곳은 불과 516m 간격을 두고 이 도로에 위치해 있다. 또 창진주유소에서 540m 떨어진 곳에 4개월 전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해피데이주유소'(l 당 1905원)가 있고, 광주역 방향으로 420m를 더 진행하면 셀프주유소인 '에코주유소'(l 당 1905원)가 있다.

이 일대 주유소는 모두 5곳. 박리다매로 휘발유 값을 저렴하게 파는 주유소로 유명한 (주)반디석유 산수점이 오픈한 뒤 기름값 낮추기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 현재 이 일대 휘발유 값은 l 당 1929원으로 동구 지역 평균 휘발유 값(l 당 1961원)보다 l 당 32원이 저렴하며, 최저가 주유소인 강변주유소(l 당 1917원)와도 12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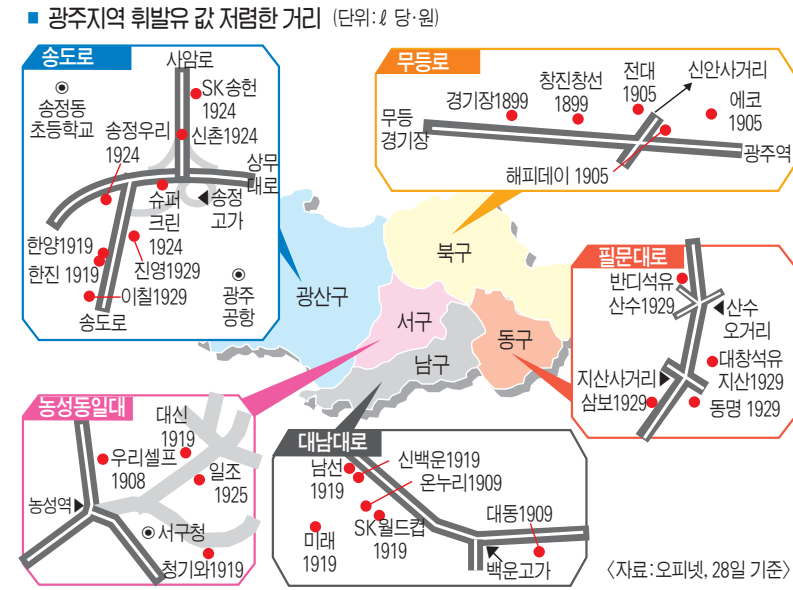
농성동에서 백운교차로까지 이어지는 대남대로와 금화로 인근 남구지역 주유소들의 신경전 또한 치열하며 "4개월 전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서 셀프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사은품도 제공하지 않는 등 운영비를 최소화해 저렴하게 기름값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구 지산사거리 주변 필문대로(산수동-동명동)를 사이에 둔 주유소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 일대 주유소는 모두 5곳. 박리다매로 휘발유 값을 저렴하게 파는 주유소로 유명한 (주)반디석유 산수점이 오픈한 뒤 기름값 낮추기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 현재 이 일대 휘발유 값은 l 당 1929원으로 동구 지역 평균 휘발유 값(l 당 1961원)보다 l 당 32원이 저렴하며, 최저가 주유소인 강변주유소(l 당 1917원)와도 12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농성동에서 백운교차로까지 이어지는 대남대로와 금화로 인근 남구지역 주유소들의 신경전 또한 치열하며 "4개월 전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셀프주유소로 l 당 휘발유 값이 1909원으로 남구에서 가장 저렴한 대동과 온누리 주유소를 비롯해 대기업 브랜드 없이 영업하는 무플 주유소인 대일(l 당 1929원)과 남강(l 당 1917원)와도 12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광산구의 경우 상무대로로 이어지는 송도로(광주역 인근)부터 송정고가(앞)와 사암로(송정고가에서 우산사거리까지) 주변에 휘발유 값이

저렴한 주유소들이 몰려 있었다.

송도로에 위치한 한양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인 한진주유소가 l 당 휘발유 값이 1919원으로 이 일대에서 가장 저렴했다.

서구는 농성동 주변 농성동 일대 우리셀프(l 당 1908원)·대신(l 당 1919원)·남선석유 청기와(l 당 1919원)·주유소가 서구 평균 휘발유 값(l 당 1971원)보다 l 50~60원 가량 저렴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구조조정중 기업도

무역보험 특별지원

지식경제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6월 까지 구조조정중인 기업에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수출계약을 했다라도 구조조정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을 지원하지 않았다.

지경부는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이 작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만큼 법정관리종이거나 위크아웃중인 회사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 지원을 신청하려면 무역보험공사에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서나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서를 제시하면 된다.

수출신용보증은 1천억원 한도내에서,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경부는 내년 상반기 지원 실적과 성과를 종합해 지원기간 연장, 지원종목 확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9월 거주지 이동자

25년만에 가장 적어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 수가 25년 만에 가장 적었다. 부동산 경기 가라앉은 상황에서 9·10 부동산대책 발표로 주택거래가 급감한 탓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국내인구이동을 보면 지난달 이동자는 50만 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9% (8만9000명) 줄며 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1987년 1월 46만8000명 이래 25년8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말하는 인구이동률은 1.00%로 해당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9·10대책이 담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9월24일부터 시행되면서 대책 발표 이후 시행 시기까지 주택거래를 늦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생산량 감소 기대...수확기 쌀값 올라

80kg 산지가격 2000년 이후 처음 17만원 돌파

수확기를 맞아 쌀값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지만 쌀값이 오려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농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 20kg에 4만1800원이던 쌀 도매가격은 지난 19일 4만2250원, 23일 4만2350원, 26일 4만2400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쌀 가격은 지난해 4만3000원보다는 5.2%, 평년(5년간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

3만7432원에 비해 13.3% 오른 가격이다.

쌀값은 이미 4만3000원대로 올라섰다. 산지에서는 80kg 쌀 가격이 이달 중순 17만원을 돌파했다. 산지 가격이 17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올해와 같이 본격적인 수확기에 쌀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태풍 '볼라벤'과 '덴빈' 탓에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들고 있다. 생산량이 줄어들자 쌀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속에 일부 농민들은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호남 지방통계청은 울진군에서 쌀 예상 생산량은 138만t으로 지난해 154만t보다 10.2% 줄고, 전남은 전년(82만940t)보다 12.0% 감소한 72만9498t으로 예상된다.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농가들은 정부 발표보다 쌀 생산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정부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주택시장 바닥 찍었나 9월 건설 인허가 연중 최고치

지난달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분양·착공 물량도 늘었고, 이달 들어 주택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어 9.10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5만2216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18% 증가하며 연중 최고치

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8월의 3만9030가구에 비해서는 33.8% 늘어났다.

지난 8월에는 작년 동월대비 물량이 20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바 있다. 1~9월 실적은 37만3303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24.8%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6734가구로 작년 동월대비 41.8% 증가했고, 지방은 2만5482가구로 작년(2만5395

가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6844가구로 29.1% 늘어났지만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만5372가구로 2.2% 감소했다.

이처럼 인허가·분양·착공 등의 지표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며 일각에서는 주택시장이 바닥을 탈출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9.10 대책 이후 주택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심심합니다”...완도 특산물 (주)광주신세계가 지역 우수상품 판로확대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백화점 지하층 식품관에서 '완도군 향토 특산물전'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캠코 서민금융상품 바뀌드림론 금리 0.5%P 인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서민금융상품인 바뀌드림론 평균 대출금리가 연 11.0%에서 10.5%로 0.5%포인트 내린다.

캠코는 11월12일부터 바뀌드림론 금리가 보증료율을 포함해 연 8.5~12.5%(평균 11.0%)에서 8.0~

12.0%(평균 10.5%)로 낮아진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바뀌드림론'도 새

금리를 적용해 다음 달 12일 출시하기로 했다.

바뀌드림론은 서민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발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으로 연 10.5% 수준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서민금융제도다. 2008년 말 출시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만9103명에게 1조3382억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 (삼일로점 삼일로) : 02-2276-0587-9 강남점 (강남고척터미널) : 02-3477-5110 중로27점 (금강제약) : 02-733-0220 송파점 (석촌역 2번 출구) : 02-419-3388 신동점 (선릉역 2번 출구) : 02-686-1838 경기 안양점 (구.사민회관 앞) : 032-421-2288 부평점 (부평역) : 032-517-5110 수원점 (남문) : 031-246-5110 의정부점 (의정부역) : 031-821-6655 안양점 (백산소동2001) : 031-469-0110-1 평택점 (평택역 앞) : 031-656-5110 용인점 (용인네거리) : 031-336-1090 오산점 (국민은행 2층) : 031-378-4183 부천시점 (롯데백화점) : 032-329-4400 남양주점 (내호점역 앞) : 070-829-9903 부산 서면점 (서면역) : 051-818-8800 서면점 (서면역) : 051-818-8800 남포동점 (부평역) : 051-256-7200 울산 울산점 (중앙로) : 052-268-2283 경남 마산점 (마산역) : 055-297-6060 전주점 (중앙로) : 055-746-9870 대구 동안점 (동안네거리) : 053-425-4440 삼척점 (삼척네거리) : 053-426-1511 남동점 (아카리 지하상가) : 061-752-8946 경북 포항점 (포항역) : 054-244-5110 안동점 (구.안동고교) : 054-659-2246 광주 광주점 (구.도정) : 052-225-5110 광주점 (백운교) : 02-665-4477 전남 순천시점 (중앙사거리 지하상가) : 061-752-8946 전북 완주점 (완주역) : 053-252-5728 군산점 (구.서원) : 053-446-0198 익산점 (백부사거리) : 053-038-5000 남원점 (시랑네거리) : 053-032-2026 대전점 (도림) : 042-254-5110 대전점 (충선로) : 042-222-3388 대전점 (대전역) : 042-255-9300 충남 천안점 (천안역) : 041-553-2668 광주점 (중주사거리) : 041-828-5110 충북 충주점 (충주역) : 043-222-1177 충북 충주점 (삼일로) : 043-652-1414 강원 강릉점 (옥천역) : 033-647-6588 순천점 (말호광장) : 033-253-5110 제주 제주점 (광복로) : 064-753-458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권도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교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